

## 「중금리대출 발전방안」 관련 주요 Q&A

### 1. 「중금리대출 발전방안」을 마련한 이유는?

- ☐ 내년('19년)이면 중금리대출 사업이 시작된지 3주년을 맞아가는 시점에서,
  - 그 동안 추진되었던 정책 중금리상품(사잇돌)과 민간 중금리상품이 당초 정책목표에 맞게 운영되어 왔는지 점검하고, 향후 정책방향을 세울 필요
  - 특히, 그간 중금리대출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등에 상당부분 축적된 차주정보를 금융회사가 유용하게 활용할 체계를 구축할 단계
- ➔ 중금리대출 사업이 그간의 “도입 단계”를 지나, 한단계 발전한 “성숙 단계”로 진입하기 위한 계획 수립 필요
- ☐ 또한, 지난달 「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」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,
  - 인터넷전문은행이 중·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공급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음

### 2. 사잇돌대출은 언제까지 공급을 지속할 것인지?

- ☐ 중금리대출 공급이 지속 확대되었으나, 사잇돌대출의 “마중물” 역할은 아직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
  - 정책·민간 중금리 상품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, 전체 가계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,
    - \* 가계대출(주택담보대출 제외) 중 중금리대출 비중('18.6말) : 0.82%
  -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정착을 위한 정보공유·신용평가 고도화 작업은 이제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초기 단계
- ☐ 사잇돌대출 공급기간을 현 시점에서 특정할 수는 없으나,
  - 민간 자체의 중금리대출시장이 정착하고, 신용평가 고도화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때까지는 정책 중금리대출 사업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임

### 3. 인터넷전문은행 사잇돌대출을 출시하는 이유는?

□ 인터넷전문은행 사잇돌대출을 출시하는 이유는,

① 우선, 정책 중금리대출 공급채널을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마련함으로써, 중·저신용 차주들도 보다 손쉽게 사잇돌 대출을 이용하도록 돕기 위함

② 또한,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,

- 상대적으로 중금리대출 취급실적이 높지 않은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도록 “촉매제 역할”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

□ 특히,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잇돌대출을 취급함으로써,

-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다 손쉽게 정책 중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(“직접적 효과”) 외에도,
- 대출 이용 과정에서, 인터넷전문은행의 중·저신용 차주들에 대한 접점이 확대되어, 자체적으로 중·저신용 고객정보가 축적되며,
  - 서울보증보험이 기존에 축적한 중금리대출 고객정보 공유\* 등을 통해 신용평가 고도화 → 자체적인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기반이 마련되는 효과(“간접적 효과”)도 기대됨

\* 서울보증보험 축적 정보는 사잇돌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게만 제공

### 4.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 중금리대출을 공급하지 않고 사잇돌대출과 같은 보증부 대출로 손쉽게 영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?

□ 정책 중금리대출(사잇돌대출)과 자체 중금리대출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,

- 정책 중금리대출(사잇돌대출) 취급을 기반으로, 자체적인 중금리대출을 확대해 나가는 “보완적”인 관계임

→ 정책 중금리대출(사잇돌 대출)을 운영하는 취지는,

- ①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중·저신용 차주 접점을 확대하고,
- ② 정보축적을 통해 신용평가를 고도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체 중금리대출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(“마중물 역할”)
- 특히,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잇돌대출 취급 과정에서 얻는 중·저신용 차주의 정보와, 유통·통신등 빅데이터 기반과 연계된 자체적인 IT 기반이 접목될 경우,
  - 보다 실질적인 자체 중금리 공급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

□ 특히, 지난달 「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」 통과를 계기로,

- 자본확충 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기반 확대가 가능해지고, 중금리대출 공급에도 역점을 둘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,
-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사잇돌대출 뿐 아니라, 자체적인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독려해 나갈 것임

5.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해 업권별로 금리요건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신용자로 대출이 몰릴 가능성은?

- ☐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“신용등급” 요건은 현행 기준이 유지됨 (4~10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 70% 이상)
- ☐ 금융회사들은 중금리대출 고객군에 대해 대출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금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,
  - 중·저신용 대출자들 사이에서 상환능력이 높은 차주 등을 선별하여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

< 참고 : 민간 중금리대출 인정 기준(현행) >

- ❶가중평균금리 16.5% 이하, ❷최고금리 20% 미만이고,
- ❸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 대해 70% 이상을 실행
- ❹대출조건 등을 사전에 공시할 것

6. 중금리대출 금리 인하로 중·저신용 차주가 금융권 대출이 거절되거나, 대부업 대출 등으로 밀려날 가능성은 없는지?

- ☐ 금번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는,
  - 업권별 비용구조(조달금리, 부실율, 판매·관리비 등)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, 가급적 차주의 금리부담을 낮추고자 한 것으로서,
  - 차주의 신용등급 요건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, 중·저신용자에 대해 대출이 거절되거나, 배제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
- ☐ 또한, 업권별 비용구조를 반영하여 중금리대출 금리수준이 책정되고 금리 단층현상도 완화되므로,
  - 중·저신용자는 다양한 업권에서 다양한 금리대의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

## 7. 그간 카드론 중금리대출이 공급되지 않은 이유는?

□ 그간 중금리대출 금리기준(평균 16.5%)이 카드사 비용구조에 비해 높아 카드사가 쉽게 금리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,

\* 카드론 평균 금리('18.3월) : 15.0%

○ 카드론 중금리상품이 출시될 경우, 손쉽게 가계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

→ 가계대출 증가 관리 등을 위해 카드론 중금리대출 출시는 자제

□ 그러나, 금번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에 따라 카드사 비용구조에 맞도록 금리요건 조정(16.5% → 11.0%)

→ 카드론 중금리대출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

## 8. 카드론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경우 카드사 가계대출 공급액이 과도히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?

□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차등화하여, 카드사 비용구조에 맞게 금리요건이 강화되므로,

○ 카드론 중금리대출이 출시되더라도, 가계대출 급증세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

\* 기존 카드론 공급액 중 강화되는 중금리대출 요건을 만족하는 비중은 전체의 10.4% 수준인 것으로 추정

□ 다만,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카드론을 포함한 카드사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며,

○ 대출 급증 등이 발생할 경우,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

9. 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된 사잇돌대출 관련 정보는 금융회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?

☐ 현 단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금융회사가 차주 리스크를 판단하거나, 신용평가 시스템 구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

○ 신용정보법 개정 이전에는 “비식별화” 조치가 완료된 정보만 제공될 수 있으며,

\* 서울보증보험이 취급한 21만명 차주의 소득, 근속연수, 연체일수 등 관련 정보가 “비식별화” 조치 이후 제공됨

○ 금융회사는 동 정보를 바탕으로 사잇돌대출 차주의 일반적인 성향, 소득·근속연수·연체일수 등 간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신용평가시스템 개발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

☐ 신용정보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는, 금융회사가 자사 신용평가 시스템에 접목하여 시스템 고도화에 직접 활용 가능

○ 신용정보법 개정이 이루어지면, 서울보증보험이 제공하는 정보와 금융회사 CSS 정보를 “국가지정 전문기관”이 엄격한 보안성 절차 아래 “데이터 결합”을 수행하고,

\* 국가지정 전문기관은 ①양 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하게 “가명화 조치”를 취한 후 ②가명정보가 일치하는 정보끼리 결합  
③결합한 정보는 엄격한 보안 절차아래 관련기관에 전달

○ 결합된 정보는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(CSS)에 직접 활용되어 중·저신용자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신용평가 가능

10. 비식별화된 정보는 금융회사의 활용가치가 낮지 않은지?

☐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,

① 그간 금융회사에서 취급되지 않았던 다수 중·저신용 차주의 정보를 소득·근속연수·연체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할 수 있으며,

-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대출전략 수립,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

② 또한, 서울보증보험 - 신용정보원 - 금융회사 간 정보제공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는 등 중요한 의미가 있음

☐ 향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,

○ 국가지정 전문기관(예 : 신용정보원)의 가명화조치 및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해 신용평가 고도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